통일화보

주체111(2022)년
(5—6월)
3호

불같은 사랑으로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시는 위대한 어버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속에 빛나는 동포음악가의 한생

ISSN2305 8544
9 772305 854008

통일화보 주체111(2022)년 3호 (5－6월)

절세의 위인

소 식

최악의 국난속에서 국가부흥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표지: 평양시안의 약품봉사와 의약품수송임무에 긴급투입되는 조선인민군 군의부문의 전투원들

뒤표지: 조선의 국화 《목란》

편집: 리대성, 정철성

28

42

44

58

64

70

인물소개

72

슬기로운 우리 민족

온 나라 가정의 평온과 웃음을 지켜 잠 못드는 위대한 어머니당

불같은 사랑으로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시는 위대한 어버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기의 본성으로, 신성한 정치리념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것은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걸머지고 실행하여야 할 최급선무이며 또한 가장 영예로운 혁명사업으로 됩니다.

김 정 은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때로부터 지나온 수십여일, 이 나라에 격정의 눈물이 없이는 접할수 없는 가장 감동적이며 위대하고 숭엄한 화폭이 펼쳐졌다.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첨예한 방역대전의 이 나날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불같은 사랑과 정으로 인민을 더욱더 억세게 품어안으시였다.

깊은 밤, 새벽 2시, 3시… 이 나라의 새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소집하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정치국 협의회, 정치국 상무위원회회의, 국가비상방역사령부방문과 더불어 인민의 운명을 실은 초침소리로 밝아왔다.

5월 1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주체111(2022)년 5월 12일

조성된 방역위기상황에 맞게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할데 대하여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이 더욱 악화되고있는 가운데 우리 경내에 스텔스오미크론변이비루스가 류입되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할것이다.
2.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서는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우며 나라의 방역사업전반을 엄격히 장악지휘할것이다.
3. 당, 행정, 경제기관, 안전, 보위, 무력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기관, 모든 부문에서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지시를 당중앙의 요구로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집행하며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하는데 맞게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국가사업전반에서 사소한 편향도 나타나지 않도록 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를 사회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가 5월 1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정치국은 먼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정치국은 다음으로 나라앞에 조성된 방역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성된 방역위기상황에 맞게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회의를 결속하시면서 비상방역사업에서 철저히 견지해야 할 원칙과 과업들을 제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악성비루스보다 더 위험한 적은 비과학적인 공포와 신념부족, 의지박약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당과 정부, 인민이 일치단결된 강한 조직력이 있고 장기화된 비상방역투쟁과정에 배양되고 다져진 매 사람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고도의 자각성이 있기때문에 부닥치는 돌발사태를 반드시 이겨내고 비상방역사업에서 승리하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신심을 굳게 하고 위대한 힘을 배가하여 방역대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단결로써 우리들자신의 귀중한 생명과 생활과 미래를 끝까지 지켜내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5월 12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5월 12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안의 지휘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성된 방역위기상황에 대처하여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후 하루동안의 방역실태에 대하여 점검하시고 전국적인 전파상황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악성비루스의 전파를 억제하는데서 전국의 모든 도,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하면서 사업단위, 생산단위, 거주단위별로 격페조치를 취하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직면한 보건위기상황을 하루속히 역전시키고 방역의 안정을 회복하며 우리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수호하는것은 우리 당앞에 나선 가장 중차대한 도전이고 지상의 과업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방역전쟁을 승리적으로 주도해나갈 당중앙의 결심과 의지, 전략전술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 일군들이 당과 혁명이 부여한 엄숙한 사명감과 책무를 깊이 자각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 정신의 요구대로 과감한 용기와 실천력으로 악성전염병의 전파근원을 완벽하게 차단, 소멸하며 방역대전의 승리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시고 전국적인 비상방역상황을 료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5월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최대비상방역체계의 가동실태를 점검하고 정치실무적 대책들을 보강하기 위하여 5월 14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협의회를 소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계적으로 신형코로나비루스전파상황이 매우 심각한것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이 악성전염병의 전파가 건국이래의 대동란이라고 말할수 있지만 방역정책실행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에 기초한 강한 조직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방역투쟁을 강화해나간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중앙이 력사의 시련앞에서 다시한번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검증받을 시각이 왔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무엇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워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자각할 때이라고, 우리 당은 자기의 중대한 책무앞에 용감히 나설것이며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질것이라고 하시면서 방역전에서 반드시 대승을 이룩할 결심과 의지를 거듭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와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본부당위원회에 바친다고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고 제의하시였다.

인민이 터치는 심장의 웨침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에서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와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본부당위원회에 바친다고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고 제의하실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였는데 오늘 우리 가정에서 그 상비약품을 받아안는 순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찾아오신것만 같아 쓰러져있던 온 집안식구들이 기적처럼 일어나 총비서동지만세를 부르고 또 부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황해남도 태탄군농기계작업소 로동자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늘의 돌발사태앞에서 총비서동지의 안녕부터 먼저 생각하며 가슴을 조이고있는데 매일 매 시각 우리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해 그처럼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면서도 가정에서 쓰셔야 할 귀중한 약품마저 우리에게 돌려주시니 세상에 총비서동지처럼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강원도 문천시 주민

총비서동지께서 궁벽한 산골마을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사랑의 불사약을 보내주시였습니다. 이 하늘같은 은혜를 눈에 흙이 들어간들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정말 평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외진 마을에 살아도 총비서동지의 사랑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는것을 페부로 절감하였습니다.

평안북도 벽동군 주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또다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5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5월 15일 또다시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방역대책토의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협의회에서는 국가방역체계가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후 전반적인 방역실태를 재점검하고 의약품공급에서 나타난 편향들을 시급히 바로잡기 위한 문제를 집중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방역사업전반에서 나타나고있는 일련의 편향들을 지적하시고 그를 시급히 퇴치하기 위한 실무적대책들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강력한 력량을 투입하여 평양시안의 의약품공급사업을 즉시 안정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현 방역형세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 기초하여 방역정책을 보다 효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토의하시고 당면한 투쟁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시였다.

인민이 터치는 심장의 웨침

집안에서 아들애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자 모두가 안타까와하고 있는데 글쎄 어떻게 알았는지 총비서동지께서 보내주신 군인들이 달려왔습니다. 뜻밖의 일에 놀라는 저에게 군인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이 깃든 약품들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갖가지 약들을 안겨주고 그 사용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것이였습니다. 그날 저는 우리가 받아안는 사랑이 너무도 뜨거워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습니다.

평양시 대성구역 룡흥2동 주민

방역대전의 하루하루가 흐를수록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선 수호자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우리들의 가슴속에 그들먹이 차오릅니다.

하루 24시간 인민들에게 약품을 봉사하고도 힘든 내색이 없이 자기가 간수하고있던 자금으로 여러가지 의약품을 마련하여 앓고있는 주민지역의 가정들을 찾아가 안겨주고 치료도 성심성의로 해주는 이런 불같은 심장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군인들입니다.

정말이지 총비서동지께서 보내주신 우리 군대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2동 주민

때없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치료방법을 알려주며 때식도 잊고 쉴새없이 약품을 공급하는 군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친혈육의 정을 느꼈고 다심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가셔주시려 불철주야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총비서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려보았습니다.

평양시 중구역의약품관리소 해방산분점 판매원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찾으시여 의약품공급실태를 직접 료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5월 15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5월 15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마치시는 길로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찾으시여 의약품공급실태를 직접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구역에 위치한 약국들에 들리시여 의약품공급 및 판매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이후 무슨 약들이 공급되였는가, 약품들을 규정대로 보관하고 있는가, 약국들이 24시간봉사체계로 전환하였는가,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상담은 하는가, 해열제와 항생제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주민들이 지금 제일 많이 찾는 약은 어떤 약들이며 가격은 얼마인가를 세심히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의약품공급체계의 허점을 바로잡고 의약품수송과 관련한 강력한 실행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전반적인 약국들이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꾸려져있지 못하고 진렬장외에 약품보관장소도 따로 없는 락후한 형편이라고 하시면서 판매원들이 위생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를 하고있는 실태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위생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의 방역대전은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방역, 인민자신이 주인이 되여 시행하는 인민적인 방역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갈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인민이 터치는 심장의 웨침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우리 약국을 찾으시였을 때 한달음에 달려가 안기고싶었지만 저도 방금 병을 앓고난 뒤여서 그저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였습니다. 그런데 총비서동지께서는 저의 몸상태를 알아보시고 오히려 저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오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어떻게 치료하는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가, 주민들이 만약 열이 나서 동무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설하겠는가 하는것을 실지 자신께 한번 설명하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저의 대답을 들으신 총비서동지께서는 주민들에게 이번 전염병에 대하여 과도하게 겁을 먹을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것을 잘 해설선전해주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이르시였습니다.

장생약국 판매원

유열자들이 발생한 때로부터 며칠째 수많은 사람들의 래왕이 그칠새 없던 그곳, 아직은 위생환경도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약국들에 새겨지던 자애로운 어버이의 눈물겨운 헌신의 자욱이 지금도 눈앞에 어려옵니다.

정녕 온 나라 인민을 품어안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불같은 열과 정으로 이렇듯 매일밤 우리들의 포근한 잠자리를 지켜주고계십니다.

남포시 천리마구역 봉화동 주민

지금 돌고있는 열병이 공기를 통해 순간에 전염된다는데 총비서동지께서 몸소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돌아보시였다니 이게 있을번한 일입니까.

총비서동지께서 안녕하셔야 우리도 있고 행복도 있다는것이야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총비서동지를 그런 곳에 모시였다니 하늘이 무너져내리는것만 같았습니다.

청진시 신암구역 은혜동 주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회의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5월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회의가 5월 1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현시기 당과 국가의 방역정책집행과 관련한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생활분야를 안정시키기 위한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생활보장과 생활물자공급을 더욱 짜고들고 주민들의 치료수요와 조건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각방의 노력을 다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맞다든 위기는 우리 국가의 모든 사업체계의 우단점을 판별해볼수 있는 시험대를 제공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비상시국의 모든 현상들을 정확히 투시해보고 비판적, 발전적견지에서 대책하며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 사회의 각 부문의 사고와 행동을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통일시키고 모든 국가활동에서 당중앙과의 일치보조를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유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비상시국하에서 전당을 다시한번 활화처럼 불러일으켜 우리 당 특유의 세련된 령도력을 력사와 시대앞에 검증받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게 함으로써 반드시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고 또다시 영웅조선의 힘, 영웅조선의 정신을 만천하에 과시하게 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5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5월 21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협의회를 소집하고 현 국가방역능력의 정비보강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준비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협의회에서는 먼저 나라의 전반적인 전염병전파상황이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되고있는데 맞게 당과 국가의 방역정책을 보다 효률적으로 조종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악성비루스와의 방역전쟁이 개시된 지난 9일간의 방역사업실태를 개괄분석하시였다.

협의회에서는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사업을 작전하고 지휘하는 지구별치료중심을 내오고 전국적 의료력량의 균형적배치를 실시하는 문제, 평양시와 각 도, 구역, 군들에 의약품보급중심과 의약품보급거점을 설치하고 의약품공급사업의 효과성, 신속성, 안전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 효능높은 고려약을 치료에 적극 리용할데 대한 문제, 제약공장들의 생산능력을 높이고 필수약품, 상비약품들의 품종을 늘일데 대한 문제,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일층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강하게 세우는 문제들이 토의되고 해당한 정책적조치들이 강구되였다.

협의회에서는 다음으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상반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을 전면적으로 료해하기 위한 실무지도소조를 각 도에 파견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5월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5월 2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협의회를 소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정치국은 먼저 5월 28일현재 전염병전파상황에 대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지역별 전염병전파상황과 병경과특성들, 각종 분석자료들과 의약품공급사업 및 치료경험들이 정치국에 보고되였다.

정치국은 초기발병지와 전파경로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해명결과를 청취하고 해당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정치국은 전국적범위에서 전염병전파상황이 통제, 개선되고있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방역초기에 쌓은 경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방역전황을 계속 안정향상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정치국은 전염병전파상황이 안정되는 형세에 맞게 방역규정과 지침들을 효률적으로 신속히 조종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심의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포치한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을 중간총화하기 위한 실무지도소조들의 활동정형이 통보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준비사업과 관련한 중요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협의회에서는 또한 기타 국가사업방향들에 대한 연구토의사업들이 진행되였다.

가정에서 황해남도 해주시 인민들에게 보낼 약품들을 마련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6월 15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급성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6월 15일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조선로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본부당위원회에 전하시면서 지원약품들을 해주시당위원회에 보내주며 시당위원회가 전염병으로 앓고있는 대상세대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약품들을 빨리 전해주어 치료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태게 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부서초급당위원회들과 당세포들에서 해주시와 강령군일대에서 발생한 전염병치료에 필요한 약품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잘함으로써 당중앙위원회 일군들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다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급성장내성전염병의진자들에 대한 격리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전염경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역학조사와 과학적인 검사방법으로 확진하며 발병지역에 대한 소독사업을 강도높이 진행하는것과 함께 해당 지역의 보건기관들에서 극진한 정성으로 환자들에 대한 집중치료사업을 잘함으로써 전염병을 하루속히 근절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인민이 터치는 심장의 웨침

오늘 오전에 시당책임일군이 집에 찾아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보내주신 약품을 전달해줄 때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몸을 꼬집어보기까지 하였습니다. 꿈이 아닌 현실임을 알고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해주시 룡당1동 38인민반 주민

7살 난 딸자식이 고열로 앓고있는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할지 몰라 정말 안타까왔는데 이렇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약품들이 우리 가정에 와닿을줄 몰랐습니다. 친부지자식도 아버지원수님의 은덕이 너무도 고맙고 꿈만 같아 소리내여 울었습니다.

해주시 서애동 54인민반 주민

이 약품들의 진가를 어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약용가치로만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무한대한 사랑이 어려있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체현되여있기에 이 약들은 진정 세상에 없는 명약이고 죽음도 물리치는 불사약입니다.

강령군 읍 112인민반 주민

지금처럼 일손이 제일 많이 요구되는 계절에 또다시 뜻하지 않은 전염병발생으로 은근히 농사일을 생각하며 속태우고있었는데 이렇게 사랑의 불사약들을 받아안고보니 힘이 생깁니다. 지금 군안의 모든 농장원들의 가슴가슴은 당의 크나큰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일념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습니다.

강령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혁명적동지애와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양형섭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령구를 찾으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현철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총고문의 령구를 찾으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5월 14일 양형섭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서거에 즈음하여 고인의 령구를 찾으시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추도곡이 울리는 장내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충직한 혁명전사이며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위업을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 공헌한 로혁명가를 잃은 비애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시는 화환이 고인의 령구앞에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정권과 사회주의제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친 고인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높은 당성과 혁명적원칙성을 지니고 한생을 변함없이 당과 혁명앞에, 조국과 인민앞에 충실하여온 귀중한 혁명동지를 잃은 비통한 마음을 안으시고 고인의 령구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시고 따뜻이 위로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5월 20일 현철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총고문 조선인민군 원수의 서거에 즈음하여 고인의 령구를 찾으시고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존함을 모신 화환이 고인의 령구앞에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애의 전 기간 일편단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특출한 공적을 세운 공화국무력기관의 원로이며 견실한 혁명가인 고인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과 투철한 혁명적원칙성, 결곡한 품성을 지니고 우리 당건설과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 지울수 없는 뚜렷한 자욱을 남긴 귀중한 혁명동지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령구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5월 22일 국가장의식장에 나오시여 가장 존경하던 혁명선배이며 우리 군의 원로였던 견실한 혁명가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금치 못하시며 고인의 령구를 메고 발인하시였다.

이날 오후 신미리애국렬사릉에서 엄숙히 거행된 영결식에 참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귀중한 혁명의 원로와 영결하는 슬픔을 누르시며 고인의 유해에 흙을 얹으시고 전체 영결식참가자들과 함께 묵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현철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총고문의 령구를 메고 발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현철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총고문과의 영결식에 참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주체111(2022)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회의실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원수님께 사회를 위임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소집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조직문제
2.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중간총화와 대책에 대하여
3. 현 비상방역상황관리와 국가방역능력건설을 위한 과업에 대하여
4. 당규약과 당규약해설집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할데 대하여

첫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둘째 의정에 대한 결론을 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 《현 비상방역상황관리와 국가방역능력건설을 위한 과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악성전염병위기를 최종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을 회복하며 국가의 방역능력, 위기대응능력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전략전술적인 방략들이 명시된 보고를 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종합된 의견들을 최종심의하고 둘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과업들을 일부 조정함에 대하여》와 셋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국가방역능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세울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넷째 의정 《당규약과 당규약해설집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할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원회의를 결속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는 당중앙의 혁명사상과 유일적령도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시련속에서 다지고 다져온 불패의 전진동력으로 부흥강국의 새시대,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기를 과감히 펼쳐가는 우리 당의 혁명적면모와 백절불굴의 전투적기상을 다시금 뚜렷이 과시한 투쟁과 전진의 회의로 주체혁명사에 뜻깊게 아로새겨질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주요당사업문제토의를 위하여 6월 1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회의를 소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당의 당면활동과 당건설에서 나서는 주요과업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전당의 각급 조직들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결정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하며 올해 당 및 국가사업전반에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혁명적과업들을 포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중요하게 당안에 강한 규률준수기풍을 세우고 일부 당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불건전하고 비혁명적인 행위들을 표적으로 더욱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검사위원회와 지방의 각급 및 기층 규률감독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직기구적인 대책과 효률적인 사업체계를 수립하며 감독 및 규률심의, 책벌규범들을 더욱 세분화하기 위한 당면사업과 전망과업에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검사위원회의 사업보좌기구인 규률조사부서들의 권능과 직능을 확대강화하고 당의 규률건설로선의 본질과 그 강화의 합법칙적요구대로 엄격한 감독사업체계와 규률심의질서, 엄정한 책벌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과 당의 광범위한 정치활동을 강한 규률제도로 철저히 담보해야 한다고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적당의 본성과 사명과 임무 즉 본태가 철저히 계승되고 사회주의집권당의 전투적강화발전을 위해서는 전당의 당조직안에 높은 정치성과 투쟁기풍, 혁명적인 작풍과 공산주의적도덕품행을 장려하고 배양시키는 사업을 선행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당규약 및 당규률준수기풍과 당의 로선과 방침집행정형, 건전한 작풍구현과 도덕생활정형에 대한 감독사업체계와 시정체계를 엄격히 세우는것이 필수불가결의 선결과업으로 나선다고 지적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당규률건설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선결적인 중대과업, 중요로선으로 내세우고 우리 당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당정치활동에서 혁명성과 전투성을 제고하며 당의 역할과 풍모를 세련시키고 개선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중요한 전략적 당건설사상이 천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에서는 당의 군사로선과 주요국방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방위력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가 요구하는 수준에로 급속히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핵적인 문제들이 의정으로 상정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회의를 지도하시면서 혁명앞에 가로놓인 엄혹한 시련을 강의한 의지와 단호한 결단으로 헤쳐야 하는 오늘의 투쟁은 혁명보위, 조국보위의 강력한 보루인 조선인민군의 절대적힘과 군사기술적강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단히 향상시켜나갈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력강화의 명확한 실천행동지침들이 책정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를 계기로 전군이 당중앙의 군건설사상과 군사전략적기도를 받들고 들고일어나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을 만반으로 다짐으로써 위대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대한 우리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의 모든 군사정치활동에서 견지할 중요원칙들에 대한 결론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가 6월 2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비서국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회의에서는 각급 당지도기관들의 사업체계를 개선정비하고 정치활동들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당중앙위원회 일부 부서 기구를 고칠데 대한 문제, 각 도당위원회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를 내올데 대한 문제, 당총무사업규정과 기요관리체계를 개선할데 대한 문제, 보위, 안전, 사법, 검찰부문사업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강화하며 당면하여 올해중 필요한 사업을 조직진행할데 대한 문제, 각급 당조직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과 사업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새로운 학습제도를 세울데 대한 문제, 전당적으로 근로단체사업을 중시하고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중요한 당사업문제들을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부서들의 임무와 당면과업, 전당적으로 당정치활동에서 견지할 주요원칙과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유리도장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경제무역대표단이 올린 선물

주체102(2013)년 1월

소 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정치국회의가 지난 6월 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회의를 사회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토의의정을 결정하고 전원회의에 제출할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중간총화보고서를 비롯한 중요문건들과 전원회의 확대회의 토의형식, 일정, 방청자 선발정형을 심의하고 승인하였다.

소 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0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0차 전원회의가 지난 5월 3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새로 작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법, 의료감정법 등과 수정보충한 비상방역법, 도로법의 채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과 수정보충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해당 법들과 수정보충안들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당과 국가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고 인민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갈수 있게 하고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감정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상방역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등을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들을 소환 및 선거하였다.

로동신문

김 정 은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이 실린 《로동신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진행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가 지난 5월 28일과 29일 일본 도꾜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를 남승우부의장이 랑독하였다.

대회에서는 자격심사보고가 있은 다음 대회의안으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에 제출하는 총련중앙위원회의 사업보고에 대하여》, 《재정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련중앙기관의 역원선거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보고와 첫째 의안에 대한 토론들에 이어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사업보고가 있었다.

대회에서는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보고를 대회결정으로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둘째 의안인 재정결산 및 예산안심의위원회 보고가 있었으며 심의결과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대회에서는 허종만동지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으로 선거하였다.

또한 제1부의장, 부의장, 사무총국장, 총련중앙위원회 위원과 중앙감사위원회 위원들을 선거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계시면 주체위업과 더불어 총련애국위업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심장깊이 새기였다.

글 본사기자

필승의 신심과 위대한 단결력으로 방역대전의 승리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받은 인민군대 군의부문에서 강력한 력량을 평양시안의 모든 약국들에 긴급전개하여 24시간 봉사체계에 따라 약품공급을 시작하였다.

국가비상방역

1, 2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여러 구역의 약국과 의약품관리소들을 찾아 의약품들의 수요와 공급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3, 4 방역대전의 승리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 일군들

5 24시간 긴장상태를 유지하면서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 기민하게 대처해나가는 신속협의진단조 성원들

6 집중검병검진을 진행하고있는 평양의학대학 학생들

7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깃든 의약품들을 수도시민들에게 봉사하고있다.

8 약품공급과 함께 환자들에 대한 진단 및 치료도 병행하고있는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

국가비상방역

9

10

11

12

9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제기되는 정황들을 신속정확히 처리할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춘 신속기동방역조 성원들

10,11 인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는 이동봉사대원들

12 작업공간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소독사업을 강화하여 전파근원을 차단소멸하는데 총력을 집중하고있다.

최악의 국난속에서 국가부흥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비상방역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구생산에 총력을 집중

— 정성제약종합공장과 토성제약공장,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 —

정성제약종합공장에서 심각한 보건위기 상황으로 초래된 유열자들과 후유증치료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의약품생산을 다그치고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갖가지 의약품들은 각지의 약국들과 병원들에 공급되여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사진 박주성, 글 윤금철

토성
THOSONG

토성제약공장에서 증산투쟁의 불길을 힘있게 지펴 올리고있다.

현 위기를 신속히 타개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고려약을 많이 만드는데 있다는것을 자각한 종업원들은 짧은 기간에 우황청심환, 오미자단물약을 비롯한 많은 량의 고려약들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사진 박주성, 글 윤금철

보성제약공장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에서 의료기구들을 대량생산하기 위한 전투를 맹렬히 벌리고있다.

공장에서는 성능이 좋은 전기 및 전자의료기구를 더 많이 생산할 목표밑에 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 생산과 조립을 립체적으로 짜고들어 박력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사진 박주성, 글 리대성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일념 안고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이 극난한 조건에서도 증산의 동음을 울려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생산조직사업을 더욱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사탕, 과자작업반에서는 국내에서 생산한 밀가루와 옥당, 물엿 등을 기본원료로 하는데 맞게 품질에 따라 배합방법을 새롭게 연구하여 생산에 도입하였으며 빵, 떡작업반에서는 증기발생장치와 랭각기를 개조하여 그 성능을 최대한 높이였다.

음료작업반과 고기작업반을 비롯한 다른 작업반들에서도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으로 효과적인 가공방법들을 연구도입하여 각종 식료품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안정향상시키려는 이곳 종업원들의 열의로 하여 공장에서는 날마다 시간마다 제품들이 쏟아져나오고있다.

사진 박주성, 글 윤금철

위민헌신의 사랑이 불빛이 되여 흐르는 평양의 밤

불굴의 신념과 의지, 드센 배짱과 담력으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방역형세가 엄혹하다고 하여도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향한 전진을 멈출수 없다.

온 나라 인민이 산악같이 일떠서 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강철생산자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비료생산자들, 각지의 전력생산자들, 매일 수천정보의 모내기를 해제끼는 황해남도의 농업근로자들…

오늘의 이 벅찬 현실은 오직 백승만을 아는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의 발현이다.

글 윤금철

대안친선유리공장

천리마건재종합공장

천성청년탄광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신천군 새길협동농장

더 밝게 웃어라, 더 활짝 피여라

어머니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속에 마련된 새 교복을 떨쳐입고 웃음꽃을 함뿍 날리며 등교길에 오른 어린이들.

위대한 어버이의 열화같은 사랑과 정이 있어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기쁨과 행복만을 알고 자라나는것이며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꽃피우고있는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을 방문한 윤이상선생을 만나주시였다. 주체76(1987)년 10월

▎인물소개▎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속에 빛나는 동포음악가의 한생

— 조국통일상수상자 윤이상선생 —

음악으로 분렬의 장벽에 파렬구를 내고 통일의 길을 넓혀나가는데 몸담그어온 통일음악가 윤이상선생.

1917년 9월 경상남도 충무시에서 태여난 그는 남조선의 고등학교, 사범학교, 대학들에서 음악교수로 있었다.

그는 마흔이 다 되여서야 비로소 음악가가 될 결심품고 류학의 길에 올라 프랑스와 도이췰란드에서 음악리론과 작곡을 공부하였으며 오래동안 도이췰란드에서 음악대학의 교수로, 작곡가로 창작활동을 벌렸다.

일찍부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섰던 그는 1967년 이른바 《동부베를린사건》으로 랍치되여 남조선에 끌려가 2년간 옥중고초를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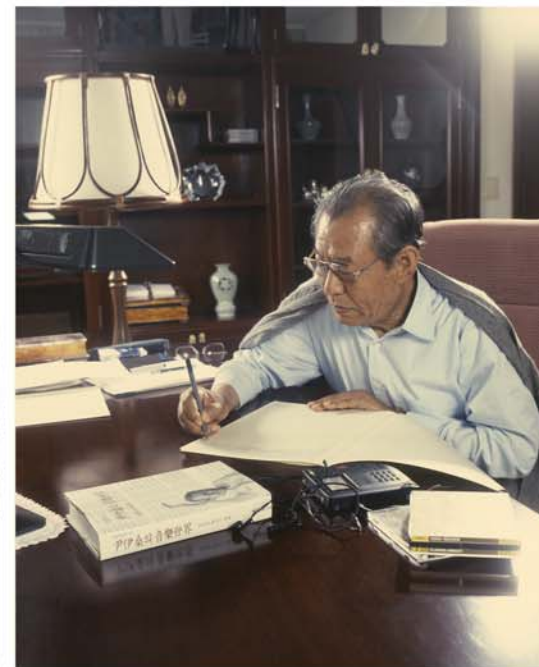
그의 파란많은 인생은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서 애국적인 음악가의 한생으로 빛나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윤이상선생을 여러 차례 만나시여 그의 작품들도 몸소 들어주시고 애국적인 창작활동을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평양의 중심부에 그의 이름으로 된 현대적인 음악당과 음악연구소를 세워주시고 정기적인 음악회와 연구토론회를 진행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주시였다.

그는 1991년부터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의장의 중책을 맡아안고 민족을 위한 음악작품창작과 함께 통일운동에 자기의 심혼을 다 바치였다.

한 해외동포음악가의 재능과 애국의 넋을 귀중히 여기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그것을 빛내여나가도록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절세위인들의 넓고 크나큰 품이 있었기에 윤이상선생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헌신할수 있었다.

글 한진아

남조선에서 옥중고초를 겪을 때의 윤이상선생 (오른쪽으로부터 첫번째)

⇑⇓ 윤이상선생은 애국적인 음악활동으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헌신하였다.

윤이상선생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의장으로 사업하였다.

윤이상음악당에서 진행된 윤이상음악회의 한 장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평양의 중심부에 세워주신 윤이상음악당

윤이상선생을 원형으로 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윤상민편)중에서

조국의 품에서 관록있는 과학자, 참된 애국자로

— 평양정향기술합영회사 사장 정종근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과학자, 교수, 박사 —

평양정향기술합영회사에서 사업하고있는 정종근선생은 나라의 선박공업발전에 한생을 바쳐가는 관록있는 과학자이다.

그는 50여년간 선박공업분야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일본에서 나서자란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50돐이 되는 1962년 봄에 재일본조선인청소년축하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의 품에 안기였다.

희망대로 김책공업대학(당시)에서 선박공학을 배우고 졸업후 어느한 연구소에서 사업하던 그는 서해갑문건설시기 가물막이철배건조 및 진수방법을 창안하여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

그는 그후에도 뜬도크설계로부터 건조와 진수의 전 공정을 맡아하였으며 련이어 뜬도크와 평선대를 결합하여 배수리효과를 높이는 뜬도크식평선대설계를 내놓았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그는 일본에서 살다가 조국의 품에 안겨 당의 배려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이미 서해갑문건설에서 큰 공을 세웠다고, 대형뜬도크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건조하고 진수하는데서 핵심적역할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조선소들에 강구에 의한 새로운 진수방법을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선박공업발전에 커다란 공로를 세운 그는 높은 국가수훈과 명예칭호도 수여받았다.

여든을 가까이하는 나이에도 지난해 선박용칠감연구에 달라붙어 내수성이 강하고 녹막이효과와 부착세기가 높은 칠감을 개발한 정종근선생은 선박공업부문에 필요한 새로운 연구종자를 안고 오늘도 과학탐구의 길을 걷고있다.

사진 박주성, 글 윤금철

김일성상 상장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크게 공헌하였으므로 김일성상을 수여한다.

사장 정종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종근선생이 수여받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와 **김일성**상 상장

〔3〕 로동신문 주체110(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우리 당이 키워낸 훌륭한 과학자, 참된 애국자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과학자 교수 박사 정종근동무에 대한 이야기

수령의 애국유산을 지키는것보다 더 영예로운 일은 없다

정종근선생을 소개한 《로동신문》

정종근선생은 고령이지만 지난해 선박용칠감연구에 달라붙어 새로운 칠감을 개발하였다.

1 정종근선생이 설계한 뜬도크식 평선대로 대형짐배가 들어오고 있다.

2 정종근선생이 창안한 모래제동식강구이동장치에 의한 서해갑문 가물막이철배의 진수모습

김책공업종합대학 선박해양공학부 교원, 연구사들과 만난 정종근선생(왼쪽으로부터 두번째)

한편의 노래에 깃든 사연

— 김성주소학교 학생 김윤정 —

아버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아
김윤정학생이 지은 노래

올해 나이가 11살인 윤정이는 지난해 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리는 영광을 지닌 소녀이다.

못잊을 그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된 경축연회장에서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다시 만나자는 사랑의 약속도 남기신 아버지원수님.

한없이 자애로우신 그날의 원수님의 영상을 그는 정녕 잊을수 없었다. 다시 뵙고싶고 날마다 뵙고싶었다.

소녀는 다시 뵙는 그날 아버지원수님께 기쁨드릴 지덕체자랑을 일기장마다에 수놓았다.

얼마전 그는 선생님의 방조속에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한편의 가요를 창작하여 내놓았는데 그 노래가 바로 《날마다 뵙고싶어요》이다.

사진 최광혁, 글 한진아

윤정이는 아버지원수님을 또다시 만나뵈오면 더 큰 기쁨을 드릴 생각으로
학습에서도, 좋은일하기에서도 언제나 동무들의 모범이 되고있다.

료리의 묘술은 지극한 정성

— 대성백화점 4층식당 책임자 공훈료리사 김석 —

료리품평회에 참가한 김석료리사

김석료리사는 언제나 손님들을 위한 료리마다에 성의를 기울이고있다.

흔히 사람들은 료리의 맛은 만드는 사람의 손맛에 달려있다고 한다.

하다면 TV무대에 자주 출연하여 사람들과 친숙해진 김석료리사의 료리맛이 좋은것도 그의 손맛때문일가?

사람들에게 그는 말하군 한다.

료리술도 높아야 하고 손맛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것이 지극한 정성이라고.

실지 그는 손님들을 위한 한가지 료리를 만들어도 자기 부모처자를 위하는 심정으로 온갖 성의와 노력을 기울이군 한다.

사실 평양고등식료료리전문학교(당시)를 졸업하고 어느한 식당에서 일할 때만 하여도 그의 료리는 인기를 끌지 못하였다.

오랜 기간 료리사로 일하는 과정에 그는 료리술도 있어야지만 성의를 다하려는 지극한 마음이 기본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올해 55살의 료리명수인 그는 해마다 진행되는 료리축전과 료리기술경연들에 참가하여 여러 차례 금메달과 상장을 수여받았으며 수십명의 고급료리사들도 키워냈다.

그는 가정주부들을 위한 료리상식을 소개하는 TV무대에서 시청자들에게 극진한 마음과 정성을 기울일것을 권고하군 한다.

사진 라춘송, 글 한진아

특색있는 명료리
꽃게튀기볶음

◆ **음식감**(g), 꽃게 3마리일 때

음식감	g	음식감	g
농마가루	20	기름	100
푸른사자고추	40	소금	5
양파	50	고추가루	20
생강	20	사탕가루	40
		맛내기	5

꽃게튀기볶음을 맛있게 만들자면…

1. 꽃게를 깨끗이 씻은 다음 네등분으로 자른다.

2. 등분한 꽃게에 소금을 뿌려놓는다.

3. 꽃게에 농마가루를 골고루 묻힌다.

4. 튀기옷을 입힌 꽃게를 180~200℃의 기름에서 튀겨낸다.

5. 볶음판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생강과 고추가루, 사탕가루, 푸른사자고추와 양파를 먼저 넣고 볶는다.

6. 튀긴 꽃게를 넣고 살짝 볶다가 맛내기를 넣은 다음 그릇에 담는다.

남녘의 민심

《전쟁부르는 북침전쟁연습 중단하라!》

남조선호전광들이 윤석열의 집권과 때를 같이하여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과의 련합군사훈련을 련이어 벌려놓고있다.

얼마전 호전광들은 미해군과 조선동해수역에서 련합반잠함탐색훈련을 벌려놓았으며 미국과의 대규모적인 련합공중훈련이라는것도 감행하였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련이어 북침전쟁불장난을 벌리고있는 것은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를 과거 보수《정권》때보다 더 험악한 국면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대결망동이다.

공화국은 이미전에 남조선호전세력의 군사적대결책동이 초래할 후과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핵보유국을 상대로 군사적망동을 삼가할것을 엄숙히 경고하였다.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모든 도전들을 선제적으로 제압분쇄할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필승불패의 강국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끔찍한 말로를 피하려거든 화약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북침전쟁불장난을 당장 걷어치우는것이 좋을것이다.

글 본사기자

력사유적

평양시 강동일대에서 구석기시대의 림경동굴유적 새로 발굴

발굴전 동굴의 입구

발굴후 동굴의 내부

인류화석들

대표적인 포유동물화석들

대표적인 포분화석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의 연구집단이 평양시 강동군 림경로동자구에서 구석기시대의 동굴유적을 새로 발굴한데 기초하여 그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유적의 면모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연구집단은 조사과정에 구석기시대 문화층(2층)에서 인류(신인)화석 7점, 짐승뼈화석 9종에 300점, 포분화석 274개를 발굴하였다.

전자상자성공명년대측정을 진행하여 이 유물들이 지금으로부터 2만 3 000±3 000년전의것이라는것을 확증하였으며 인류화석(이발과 머리통뼈쪼각)은 구석기시대후기에 산 한개체의 30대의 녀성이라는것을 해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학회에서는 강동군 림경로동자구의 자연동굴에서 발굴된 화석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여기에서 발견된 인류화석을 지명에 따라 《강동사람》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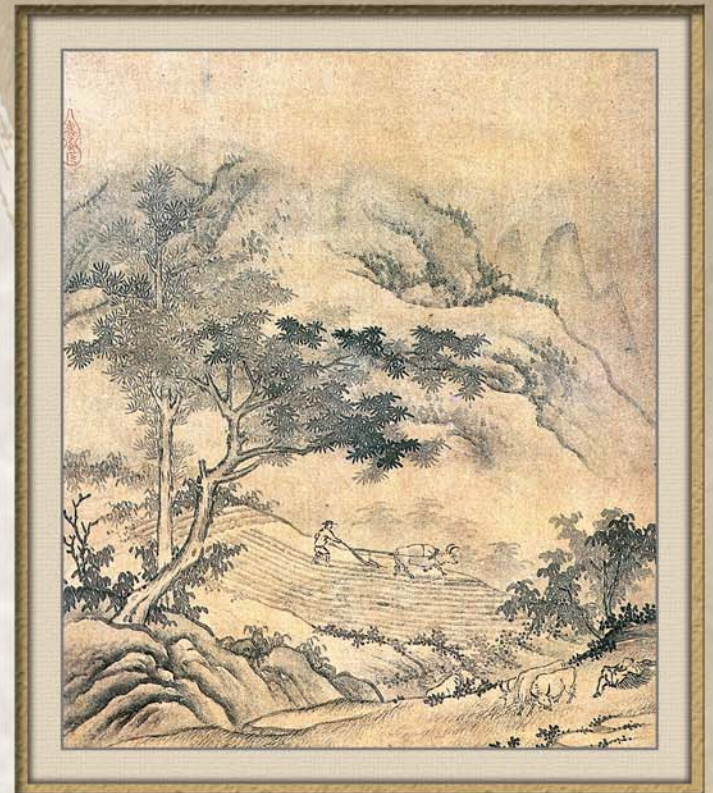
비상설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의 심의와 내각결정에 따라 림경동굴유적은 보존유적으로 등록되였다.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이 묻혀있는 평양시 강동일대에서 신인단계의 《강동사람》이 처음으로 발견된것은 이 일대가 인류문화의 려명기부터 사람들이 련면히 살아오면서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여온 지역이라는것을 인류학적으로 명백히 밝히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글 장윤정

발굴된 유물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있는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연구사들

옛 그림

윤두서와 그림 《밭갈이》

윤두서는 우리 나라 중세회화사를 대표하는 3대인물의 한사람으로서 선비출신화가였다.

그는 1668년에 출생하였다.

자는 효언, 호는 공재이다.

25살때에 진사과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을 포기하고 화단에 들어섰다.

그는 풍경화, 동물화분야에서 능수였으며 특히 인물화에서 두각을 나타내였다.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화가들속에서 인간묘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자연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려는 경향이 날로 높아가던 시기 이러한 경향을 띤 화가들의 선두에 서있던 윤두서는 자기의 창작적지향과 개성을 뚜렷이 보여준 우수한 화가였다.

그는 사물의 특징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야 그림을 그리군 하였다.

대표작으로는 《말탄 처사》, 《어부와 나무군》, 《자화상》 등이 있다.

윤두서는 18세기 인민적인 풍속화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글 송영

낸곳: 통일화보사　　주소: 평양시 중구역 련화2동
사서함: 조선 평양 국제우편국 사서함 150　　ㄱ-1546ㄷ

루계 410